



제99회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종목에 대한 대진추첨이 지난 7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와 종목별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달 12일 전북 개최 전국체전 대진추첨 진행

주사위는 던져졌다

검도·배구·태권도 등 25개 토너먼트 종목 대상으로 대진 추첨 이후 상대팀 분석 목표 달성 총력체제 전환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대진 추첨과 함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지난 8일 전북체육회는 전날 익산실내체육관에서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와 종목별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전북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종목에 대한 대진추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배점이 높은 단체 종목과 체급별 경기는 대진 운이 시·도체육회의 성적을 좌우하는 만큼 이날 대진추첨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17개 시·도간 본격적인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됐다. 대진추첨은 검도와 배구, 태권도 등 25개 토너먼트 종목 367개 세부 종목에 대해 진행됐으며, 전북은 개최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토너먼트 종목과 체급경기에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게 됐다. 전북대표선수단은 지난 7일부터 각 종목별로 100일간의 강화훈련을 돌입했으며, 전북체육회는 각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끌어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진 추첨 이후 상대팀 분석 및 대응 전술전략을 마련해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북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대진추첨 결과를 토대로 전북선수단의 전력분석을 통해 남은 기간 컨디션 조절과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물론 종합 3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KIA 최형우, 6년 연속 20홈런 이슬엽 이어 역대 두번째



KIA 타이거즈의 거포 최형우(35)가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6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했다. 최형우는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회말 홈런을 때려냈다. KIA가 4-1로 달아난 5회말 2사 2, 3루의 찬스에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삼성 선발 양창섭의 4구제 슬라이더를 톨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3점포를 작렬했다. 최형우는 올 시즌 20번째 홈런이다. 이로써 최형우는 6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점령했다. 최형우는 2013년 29개, 2014년 31개, 2015년 33개, 2016년 31개, 2017년 26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6년 연속 20홈런을 때려낸 것은 이슬엽(은퇴)에 이어 최형우가 KBO리그 역대 두 번째다. 이슬엽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프로 야구에서 뛴 2004~2011년을 제외하고 8시즌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쳤다. /뉴스

팬들이 열광한 축구대표팀 오픈 트레이닝

본 경기보다 더 뜨겁네?

"흥민 오빠~", "승우 오빠~". "오빠~." 축구대표팀의 오픈 트레이닝이 아이들의 팬 미팅을 연상하게 할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8일 오전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훈련을 팬들에게 공개했다. 2014년 9월에 처음 시작한 오픈 트레이

닝 열기는 시간 협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픈 트레이닝에 참가하기 위해 파주NFC 앞에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한정 인원 500명을 넘었다. 지금 출발하는 분들은 입장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회에 참여해 달라"고 알리기도 했다. 예정보다 2배 많은 1100여명이 몰렸다. 대구와 부산, 더 멀리 제주도에서 온 팬까지 있었다.

- 하루 전부터 밤샘대기
- 무려 1100여명이 입장
- 아시안게임 금메달
- 벤투호 출범 효과 특출
- 손흥민·이승우 등
- 아이돌 팬 미팅 연상

닝 행사다. 무려 1100여명이 찾아 오픈 트레이닝을 실시한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다. 대기 번호표까지 등장했다. 당초 대한축구협회가 계획한 입장 인원은 500명이였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하루 전인 7일 저녁부터 NFC 앞에서 줄을 섰다. "한국-코스타리카의 평가전이 끝난 직후 협회 관계자는 "벌써 500명이 넘게 줄을 섰다고 한다. 경호 인력과 직원들이 파주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뉴스

결국 협회는 입장 수를 700명으로 늘렸고 나머지 400여명도 훈련장 옆 새끼구장에서 선수들을 지켜볼 수 있게 배려했다. 팬들은 손흥민(토트넘), 이승우(베르나),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선수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열광했다. 사인을 받거나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아이돌 팬 미팅을 생각나게 할 정도였다. 벤투 감독도 활짝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 축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성인대표팀은 새롭게 벤투호가 출항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개훈련 행사가 열린 지난 8일 오전 경기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많은 팬들이 선수들의 훈련을 관람하고 있다.

2018전라북도최우수축제
2018문화관광부지정육성축제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18. 9. 14(금)~9. 16(일)_3일간
전라북도 장수군 익암공원 일원

9.14 (금)

레드콘서트 (개막축하공연) 20:10-22:00 | 익암공원 특설무대

Red Summer 레드벨벳, 데이스토티아르, 현숙, 오로라, 김민홍

레드락 페스티벌 20:00-22:00 | 익암공원 특설무대

마미, 서문탁, 락스, DJ 라니(EDM)

9.15 (토)

장수 한우마당, 전국 한우 콘서트대회, 적과의 동침

9.16 (일)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 15:00-17:00 | 익암공원 특설무대

서지호, 김홍석, 인사훈

The 12th Jangsu Hanurang Sagwarang Festival

9.16 (일)

트롯트 콘서트 (폐막공연) 19:40-21:30 | 익암공원 특설무대

송대관, 박주희, 유기찬, 임채우(wink), 김재성, 조은정

예술 포자 체험, 깃털놀이, 플라잉메를 체험

주최_ 장수군 주관_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_ 익암공원, 한우농가, 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부